

전문무용수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섭식장애의 관계

김태경* 상명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적 완벽주의 관점(Hewitt & Flett, 1991)에서 국내 전문무용수들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이 섭식장애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데 두었다. 429명의 전문무용수(남자무용수 110명, 여자무용수 319명)를 대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대의 전문무용수의 경우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은 절식행동에 영향을 주고 사회적 부과된 완벽주의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은 섭식통제행동에 직접 영향을 주지만, 이들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이 상호작용하여 섭식장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0대 이상의 전문무용수들에게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절식 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고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섭식통제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지만, 다차원적 완벽주의 하위요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다. 둘째, 발레무용수들의 세 가지 완벽주의 성향은 절식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섭식통제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발레무용수들의 섭식장애에 대한 세 가지 완벽주의 성향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한국무용수들의 경우도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이 이들의 절식행동과 섭식통제행동을 예측하였지만 둘 다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본 결과는 국내 전문 여자무용수들이 체중과 상관없이 날씬해야 하고 무용수로서 완벽한 기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사회 문화적 압박을 크게 받는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다이어트와 건강한 섭식행동이 전문무용수들에게 요구된다.

주요어 : 전문무용수, 다차원적 완벽주의, 섭식장애, 섭식행동, 건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문무용수가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구별되는 것은 그들이 동작에 완벽성을 추구하는 예술가들이라는 점이다(서차영, 1992). 자신의 일에 완벽을 기하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다. 특히 무용을 직업으로 하는 전문무용수들에게 완벽한 기량 숙달과 연기력은 자신의 무용경력뿐만 아니라 직업적 안정과 성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량 무용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전문무용수들은 장시간의 부단한 연습을 통해 완벽한 기량을 숙달하고자 노력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양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어느 경우에는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기도 한다(박수정, 김현숙, 2015; 정유진, 2013; Quested, Cumming, & Duda, 2014). 전문무용수의 이와 같은 완벽주의 성향이 섭식태도와 크고 작은 부상을 가져온다는 선행연구(Abraham, 1996; Ringham, Klump, Kaye, Stone, Libman, & Marcus, 2006)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문무용수에 대한 영향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완벽주의는 개인이 스스로 설정해 놓은 기준(개인적 기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그 기준에 도달했

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Brown, Heimberg, Frost, Makis, Juster, & Leung, 1999). 즉,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테크닉)를 완벽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성향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구분된다(Kawamura, Frost, & Harmatz, 2002). 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지닌 개인은 자신의 유능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과제 숙달에 초점을 두는 숙달목표를 지향하며(Dunn, Dunn, & Syrotuik, 2002), 보다 높은 성취와 수행향상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Ommundsen, Roberts, Lemyre, & Miller, 2005). 대조적으로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지닌 개인은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과 더불어 매사에 자신이 완벽하게 일을 마무리했다는 느낌을 가지지 못하며, 자신의 실수에 대한 과도한 염려를 하는 특성을 보인다(Enns, Cox, & Clara, 2002).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지닌 개인은 타인들로부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수행회피목표를 지향하여 낮은 성취도를 보이며(Elliot & Church, 2005), 정서적으로도 지쳐있기도 하다(Pollard-Smith & Thomson, 2017). 예를 들어 이 중에서 개인적 기준과 조직화 요인은 적응적 완벽주의에 해당되며, 성공과 탁월성 추구를 반영, 기쁨, 즐거움 등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와 관련이 크다(Slade & Owens, 1998). 반면, 실수에 대한 염려, 행동에 대한 의심, 부모의 비난 및 기대 등의 특성을 보이는 부적응적 완벽주의는(표경선, 안도희, 2006; Bieling, Israeli, & Antony, 2004; 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 1990), 강박적 성격장애, 우울 증상, 화, 불안, 탈진 등의 부정적인 정서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유영란, 최현혁, 2014; 이미화, 류진혜, 2002; Appleton, Hall, & Hill, 2009; Shumaker & Rodebaugh, 2009).

이러한 개인의 완벽주의 성향은 긍정적 또는 적응적이거나 부정적, 부적응적인 특성을 보이며 개인이 어떤 성향을 갖느냐에 따라 목표성향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서와 신체적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즉,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며 긍정적인 정서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정서경험과 더 관련이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Frost, Heimberg, Holt, & Mattia, 1993). 다른 연구자들도 Frost 등(1993)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유사한 연구결과들을 보고하고 있고(Lynd-Stevenson & Hearne, 1999; Slade & Owens, 1998) 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지닌 개인일수록 과제를 수행하는 중에 즐거움과 기쁨 등의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며 과제 수행 후 결과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높여준다고 한다. 즉 완벽주의 성향이 개인의 만족감 수준에 영향을 끼치며(Saboonchi & Lundh, 2003),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Gilman, Ashby, Sverko, Florell, & Varjas, 2005).

이러한 완벽주의는 전문무용수들의 섭식과 상호 관련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무대 위에서 무용수의 수명과 직결된 요인인 섭식장애는 보다 완성도 높은 공연과 작품을 위해 완벽한 동작수행과 연기를 해야 하는 전문무용수들에게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일 것이다. 즉 전문무용수는 부정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무용수들이 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지닌 무용수보다 섭식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전문무용수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이 섭식장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그 동안 국외에서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는 직업무용수의 섭식장애, 부상, 스트레스 등과 관련이 있고 부정적인 신체적 건강의 관련된 주요 원인이 완벽주의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Goodwin, Arcelus, Geach, & Meyer, 2014; Penniment & Egan, 2012; Zhuoli, & Yuhuan, 2015). 국내에서도 무용과 관련된 섭식장애와 관련변수와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대다수의 연구는 외모나 신체상(김혜정, 이옥란, 2011; 김시연, 백근영, 서영석, 2010; 김소정, 손준호, 류호상, 2008), 골밀도(양명주, 2012), 식이행동(김민화, 2015; 박선정, 민현주, 2012; 이지혜, 양재근, 채진석, 2015), 섭식태도 위험요인(유진, 이선애,

2005), 그리고 체중조절(김희영, 김숙영, 2003; 신말연, 2016) 등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을 뿐이다.

본 논문에서는 긍정적, 부정적 속성을 지닌 완벽주의의 개념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관점에서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로 구분하였다. 첫째로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는 완벽을 추구하는 강한 동기, 비현실적일 정도로 높은 '자기' 기준을 부여하고 고수하는 것, 실패에 대한 집착, 비현실적인 자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이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우울에 취약한 경향이 있다(Hewitt & Flett, 1991). 둘째로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인 높은 기준을 부과하고 이 기준을 달성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며,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평가불안 등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셋째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들(예: 예술 감독, 지도위원, 동료, 부모 등)에 의해 부과된 기준으로서 이 기준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는 평가불안, 통제감 상실 혹은 무기력감을 일으킬 수 있다(Hewitt & Flett, 1993).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개념(Hewitt & Flett, 1991)은 그 동안 교육, 보건, 스포츠 등의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까지 전문무용수에게 적용한 연구결과보고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직업인으로서 전문무용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을 위해서 혹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기준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긍정적, 부정적 완벽주의 차원보다는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되어지는 다차원적 완벽주의가 이들을 이해하는데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점에서 전문무용수들의 완벽주의 성향과 섭식장애와의 관계를 다차원적 관점에서 규명한다면, 이론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적용된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이 전문무용수들의 이상 섭식행동인 섭식장애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전문무용수들의 성격특성과 섭식행동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선행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문무용수가 추구하는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과 섭식장애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앞으로 전문무용수의 건강증진은 물론 나아가 완성도 높은 무대공연문화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적 완벽주의 관점(Hewitt & Flett, 1991)에서 그 동안 관련 선행연구와 이론에 근거하여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이 전문무용수의 섭식장애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앞으로 국내 전문무용수의 완벽주의 성향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들의 신체적, 심리적 안녕감 증진과 기량향상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무용수들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은 연령과 무용장르에 따라 섭식장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전문무용수들의 연령과 무용장르에 따라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들은 섭식장애에 있어서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국내 직업무용단 중에서 4개의 발레단(국립발레단, 유니버설발레단, 발레 씨어터, 광주시립무용단)과 7개의 한국무용단(국립무용단, 서울시립무용단, 목포시립무용단, 울산시립무용단, 인천시립무용단, 제주도립무용단, 정동극장 무용단) 등 국내 직업무용단을 대표하는 11개 무용단의 전문무용수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의 표집은 본 연구의 목적과 원활한 자료수집을 위해 각 무용단에서 활동 중인 전체 무용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편의표집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은 연구목적에 따라 2단계 과정 즉, 예비조사와 본 조사로 나뉘어 실시되었다. <표 1>에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무용수들의 성별, 나이, 무용장르별 사례수와 백분율이 제시되어 있다.

표 1. 설문조사 단계별 연구대상

(N=579)

특성	예비조사 (N=150)		본조사 (N=429)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성별				
남자무용수	41	27.3	110	25.6
여자무용수	109	72.7	319	74.4
무용장르				
발레	76	50.7	143	34.5
한국무용	74	49.3	256	59.7
연령				
20대	86	57.3	287	66.9
30대	64	42.7	142	33.1
무용경력				
10년이하	29	19.3	115	26.8
11년-15년	40	26.7	122	28.4
16년-20년	45	30.0	127	29.6
21년 이상	36	24.0	65	15.2
무용단 경력				
5년이하	67	44.7	250	58.3
6년-10년	45	30.0	115	26.8
11년이상	38	25.3	64	14.9

예비조사는 각 질문지의 잠재적 요인구조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1차로 6개 무용단(국립발레단, 유니버설 발레단, 광주시립무용단, 국립무용단, 서울시립무용단, 대구시립무용단)으로부터 수집된 150명(남자 무용수=41명, 여자무용수=109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9.97 ± 9.95 세이며, 평균 무용경력은 17.38 ± 7.41 년, 소속 무용단 경력은 7.65 ± 6.27 년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1차 예비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11개 무용단의 남녀 무용수들과 발레 씨어터의 남녀 무용수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전문무용수 478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지만,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된 설문지 49부를 제외시켜 429명(남자 무용수=110명, 여자 무용수=319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29.05 ± 5.74 세이며, 평균 무용경력은 15.66 ± 6.40 년, 소속 무용단 경력은 5.86 ± 5.21 년으로 나타났다.

2. 조사도구

전문무용수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Hewitt와 Flett(1991)가 개발한 3요인 45문항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를 박재우(1998)가 번안하여 사용한 3요인 25문항(자기지향적 완벽주의=10문항,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8문항, 타인지향적 완벽주의=7문항)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의 7점 Likert형으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전문무용수의 섭식장애를 측정하기 위해 이상선(1993)이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번안한 Garner와

Garfinkel(1991)의 섭식 장애 검사-26(the Eating Attitude Test; EAT-26)가 사용되었다. 이 질문지는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광범위한 행동과 특성들을 측정하기 위한 3요인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질문지는 절식(1번 문항에서 13번 문항), 폭식과 음식에 대한 몰두(14번 문항에서 19번 문항), 섭식 통제(20번 문항에서 26번 문항)를 측정하며, 각 문항은 6점 척도(1점=전혀 아니다, 6점=항상 그렇다)로 반응한다. 13번 문항은 역으로 채점한다. 이 질문지는 6점 척도로 응답하지만 가장 심한 증상을 나타내는 척도상의 위치(6점)는 3점으로, 그 다음으로 심한 증상(5점)이 2점, 1점 순서로 채점되고, 나머지(1부터 3까지)는 0점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78점 사이에 분포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더 혼란된 문제가 있는 섭식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3.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섭식장애 질문지를 이용하였으며, 타당도와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각 질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표 3>과 같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예비조사에서 수집된 다차원적 완벽주의 질문지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문항-총점간 상관인 0.3이하인 3개의 문항(3번, 19번, 22번)이 삭제되어 최종 22개의 문항이 추출되었다(누적 분산비=53.26%). 신뢰도는 0.633에서 0.712까지의 범위로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다. 본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다차원적 완벽주의 질문지의 구인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22개의 문항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542.52$, $df=206$, $Q=2.63$, $GFI=0.944$, $TLI=0.921$, $CFI=0.941$, $RMSEA=0.081$ 로 일반적 기준치를 상회하여 수용할 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예비조사에서 수집된 섭식장애 질문지에 대하여 일련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 부하량이 0.40 이하를 보인 1개의 문항(6번), 다른 하위요인으로 잘못 묶인 2개의 문항(16번, 19번), 그리고 다른 요인과 .40이상의 높은 중복 부하량을 보인 1개의 문항(20번)이 순차적으로 삭제되었다. <표 3>에서 보듯이, 3요인 22문항이 최종적으로 추출되었으며, 이들 문항의 누적 분산비는 55.85%로 나타났다. 신뢰도는 0.694에서 0.799까지의 계수를 나타내었다. 본 조사 자료로 섭식장애 질문지의 구인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22개의 문항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876.42$, $df=206$, $Q=4.25$, $GFI=0.918$, $TLI=0.924$, $CFI=0.953$, $RMSEA=0.094$ 로 일반적 기준치를 초과한 $RMSEA(0.08$ 이하)를 제외하고 대부분 수용할 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2. 다차원적 완벽주의 질문지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하위요인	문항	M(SD)	왜도	첨도	1	2	3	문항-총점간 상관
1. 자가지향적	Q6	5.43(1.01)	-1.11	1.65	.848	.055	-.022	.527
	Q7	5.57(1.18)	-1.09	1.57	.803	.072	.005	.519
	Q4	5.25(1.17)	-.84	1.04	.765	.148	-.032	.529
	Q2	5.06(1.27)	-.65	1.01	.764	.166	-.014	.549
	Q8	5.17(1.13)	-1.12	1.34	.752	.153	-.052	.518
	Q5	5.39(1.13)	-1.29	1.15	.729	.094	-.142	.421
	Q10	4.71(1.16)	-.70	1.36	.552	.275	-.005	.464
	Q1	4.05(1.30)	-.10	-.06	.464	.202	.255	.447
	Q9	4.50(1.68)	-.18	-.74	.420	.280	-.197	.329

하위요인	문항	M(SD)	왜도	첨도	1	2	3	문항-총점간 상관
2. 사회적으로 부과된	Q15	4.55(1.29)	-.21	.22	.348	.702	-.122	.588
	Q13	3.67(1.25)	.05	.09	-.095	.691	.243	.395
	Q14	4.06(1.48)	-.39	-.13	-.017	.646	.095	.367
	Q18	4.21(1.24)	-.27	.93	.230	.629	.198	.548
	Q11	3.50(1.53)	-.01	-.91	.086	.607	.042	.397
	Q17	4.42(1.27)	-.55	.49	.351	.600	.118	.592
	Q16	4.40(1.29)	-.57	.57	.306	.598	-.132	.463
	Q12	4.55(1.31)	-.33	.37	.292	.547	-.047	.472
3. 타인지향적	Q24	3.55(1.25)	-.12	-.32	-.104	.166	.878	.434
	Q25	3.49(1.28)	-.02	-.58	-.092	.160	.822	.428
	Q21	4.13(1.24)	-.21	.35	.135	-.115	.756	.410
	Q23	3.50(1.21)	-.27	.09	-.170	.130	.705	.350
	Q20	4.32(1.12)	-.60	1.05	.032	-.015	.702	.324
신뢰도				.653	.712	.633		
고유치				6.07	3.59	2.05		
분산(%)				27.63	16.32	9.31		
누적 분산(%)				27.63	43.95	53.26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898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chi^2=1809.5$, $df=300$, $Sig=.001$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과 AMOS 21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모든 검사지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탐색적 요인 분석(주축요인법, 직각회전방식), 신뢰도 분석, 그리고 최대우도방식을 이용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이 실시되었다. 둘째, 모든 변수에 대하여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를 실시하고, 무용경력, 무용단 경력 및 무용전공 집단 간 평균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 또는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과 Scheffe 사후 검정, 그리고 변수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상관분석이 실시되었다. 셋째,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이 섭식장애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interaction effect)를 검정하기 위해 Aiken와 West(1991)의 절차에 따른 일련의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넷째, 모든 통계적 유의성은 $\alpha=.05$ 로 설정하여 검정되었다.

표 3. 섭식장애 질문지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하위요인	문항	M(SD)	왜도	첨도	1	2	3	문항-총점간 상관
1. 절식	Q11	3.23(1.25)	.06	-.18	.817	-.077	.177	.661
	Q9	2.54(1.16)	.35	-.44	.810	.238	.017	.686
	Q1	3.88(1.38)	-.18	-.53	.769	-.143	.208	.621
	Q4	2.69(1.27)	.34	-.63	.734	.063	.263	.663
	Q7	2.99(1.43)	.37	-.65	.729	-.098	.230	.602
	Q12	2.90(1.31)	.29	-.37	.725	.069	.067	.576
	Q8	2.57(1.16)	.54	-.02	.704	.332	-.059	.599
	Q3	2.50(1.12)	.45	-.44	.693	.144	.059	.577
	Q5	3.87(1.58)	-.29	-.86	.680	-.283	.164	.461
	Q10	2.51(1.29)	.70	-.11	.655	.337	-.086	.537
	Q2	2.87(1.26)	.45	-.35	.590	.051	.199	.515

하위요인	문항	M(SD)	왜도	첨도	1	2	3	문항-총점간 상관
2. 섭식통제	Q23	2.71(1.34)	.56	-.47	-.243	.715	.020	.356
	Q26	2.81(1.33)	.48	-.43	-.167	.706	-.009	.304
	Q24	2.92(1.44)	.33	-.81	.052	.637	.056	.371
	Q21	1.83(1.14)	1.53	1.00	.335	.614	-.069	.402
	Q22	1.84(1.16)	1.73	1.09	.137	.613	.198	.361
	Q25	2.39(1.15)	.67	.30	.368	.552	.126	.503
3. 폭식	Q14	3.18(1.33)	.29	-.35	.330	.004	.759	.542
	Q15	2.72(1.35)	.52	-.26	.168	.053	.753	.415
	Q18	2.10(1.15)	1.09	.98	.164	.272	.730	.469
	Q17	2.11(1.30)	1.08	.41	.233	.250	.706	.505
	Q13	4.02(1.39)	-.27	-.59	-.127	-.180	.612	.372
신뢰도					.799	.795	.694	
고유치					7.10	2.88	2.30	
분산(%)					32.27	13.11	10.45	
누적(%)					32.27	45.39	55.85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848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chi^2=2208.1$, $df=325$, $Sig=.001$

III. 연구 결과

1. 상관분석

전문무용수들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섭식태도 하위요인 간의 상호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변량 상관분석이 실시되었다. <표 4>에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각 변수의 평균(M)과 표준편차(SD) 및 상관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절식($r = .175$)과는 정적으로 관련이 있지만, 섭식통제($r = .022$)와는 관련이 없으며 폭식($r = -.143$)과는 부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폭식을 제외하고 절식($r = .236$)과 섭식통제($r = .216$)과 모두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폭식($r = .145$)와 정적 관계를 보였지만, 절식과 섭식통제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측정변수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전문무용수들의 자기지향적 및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섭식장애 요인의 절식과 섭식통제와 정적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섭식장애 하위요인 간의 상관분석

변인	M	SD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절식	섭식통제	폭식
1	4.87	.69	1					
2	4.29	.82	.347**	1				
3	3.81	.89	-.229**	.062	1			
4	5.69	.82	.175**	.236**	.047	1		
5	1.95	.89	.022	.216**	.105	.235**	1	
6	2.81	.32	-.143*	.100	.145*	.319**	.287**	1

* $p < .05$, ** $p < .01$

2. 다차원적 완벽주의가 섭식장애에 미치는 영향

전문무용수들의 연령과 무용장르별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이 이들의 섭식태도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주(직접)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세 개의 완벽주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삼아 1단계 회귀식에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세 개의 완벽주의 하위요인을 이원 상호작용항으로 만들어 회귀식에 투입하였다(자기지향적 완벽주의×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자기지향적 완벽주의×타인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앞의 1단계와 2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Aiken와 West(1991)의 절차에 따라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예측변수군의 평균점수를 모두 표준화(Z-score)하였다.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경우에는 각 예측변수의 고($Z_L=1SD$)/저($Z_H=-1SD$) 편차점수를 사용하여 회귀선을 plotting(기울기)하여 그 효과를 해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5>와 <표 6>에 각각 제시되었다.

1) 전문무용수의 연령에 따른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효과

전문무용수의 연령에 따른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이 섭식장애 하위요인 중의 절식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20대의 전문무용수들에게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이 절식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30대 이상의 무용수들에게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이들의 절식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에서 보듯이, 20대의 젊은 무용수들의 경우 1단계로 완벽주의 세 요인들을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만이 절식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167, t=2.644, p<.01$), 전체 분산의 약 5.6%의 설명량을 보였다. 2단계로 세 개의 이원 상호작용항을 예측변수로 삼아 회귀식에 투입되었다. 그 결과 1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여전히 전문무용수들의 섭식태도에 정적 영향을 주었지만,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Delta R^2=.00, \Delta F=.543, p>.05$). 30대 이상의 전문무용수들의 경우에 1단계로 회귀식에 투입된 세 가지의 완벽주의 성향 중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이들의 절식행동에 직접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beta=.333, t=4.126, p<.001$), 전체 분산의 14.6%의 설명량을 보였다. 그러나 2단계 회귀식에 투입된 세 개의 이원 상호작용항은 이들 무용수의 절식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5. 전문무용수의 연령에 따른 절식행동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구분	예측변수	B	S.E.	β	t	R^2	ΔR^2	ΔF
20대	1단계 ($F_{(3,283)}=5.607, p<.001$)					.056	.056	5.607***
	SOP	.982	.371	.167	2.644**			
	SPP	.608	.366	.105	1.661			
	OOP	.329	.336	.057	.978			
	2단계 ($F_{(6,280)}=3.062, p<.01$)					.062	.005	.543
	SOP	1.122	.407	.191	2.758**			
	SPP	.636	.397	.110	1.600			
	OOP	.534	.398	.092	1.344			
	SOP×SPP	.242	.283	.095	.855			
	SPP×OOP	-.110	.283	-.035	-.388			
SOP×OOP	.028	.348	.009	.088				

구분	예측변수	B	S.E.	β	t	R^2	ΔR^2	ΔF
30대	1단계 ($F_{(3,138)}=7.845, p<.001$)					.146	.146	7.845***
	SOP	.792	.477	.137	1.662			
	SPP	1.962	.475	.333	4.126***			
	OOP	.169	.479	.029	.353			
	2단계 ($F_{(6,135)}=4.544, p<.001$)					.168	.022	1.208
	SOP	1.108	.504	.191	2.197			
	SPP	1.673	.512	.284	3.270***			
	OOP	.224	.539	.038	.417			
	SOP×SPP	1.044	.549	.169	1.902			
	SPP×OOP	.175	.476	.033	.368			
SOP×OOP	-.004	.567	-.001	-.006				

Notes: SOP=자기지향적 완벽주의, SPP=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OOP=타인지향적 완벽주의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섭식통제에 대한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두 번째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표 6>에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20대의 전문무용수들에게서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beta=.205, t=3.246, p<.001$)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beta=.128, t=2.204, p<.05$)가 섭식통제를 직접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이들은 전체 분산의 약 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단계 회귀식에 투입된 상호작용항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0대 이상의 무용수들의 경우에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이 이들의 섭식통제에 직접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beta=.207, t=2.445, p<.05$), 전체 분산 중 약 6%의 설명량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세 가지의 완벽주의 성향 간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표 7>에는 전문무용수들의 폭식행동에 대한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무용수들의 연령에 따른 완벽주의 성향은 이들의 폭식행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에서 보듯이, 전문무용수들의 연령에 관계없이 이들의 폭식행동에 대한 완벽주의의 주(직접)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전문무용수의 연령에 따른 섭식통제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구분	예측변수	B	S.E.	β	t	R^2	ΔR^2	ΔF
20대	1단계 ($F_{(3,283)}=5.959, p<.001$)					.059	.059	5.959***
	SOP	-.044	.186	-.015	-.236			
	SPP	.594	.183	.205	3.246***			
	OOP	.371	.168	.128	2.204*			
	2단계 ($F_{(6,280)}=3.220, p<.01$)					.065	.005	.512
	SOP	-.002	.204	-.001	-.009			
	SPP	.608	.199	.210	3.061**			
	OOP	.487	.199	.168	2.448*			
	SOP×SPP	.126	.142	.098	.888			
	SPP×OOP	-.099	.141	-.062	-.700			
SOP×OOP	.012	.174	.008	.071				
30대	1단계 ($F_{(3,138)}=2.789, p<.05$)					.057	.057	2.789*
	SOP	.173	.241	.062	.718			
	SPP	.380	.241	.134	1.578			
	OOP	.593	.243	.207	2.445*			
	2단계 ($F_{(6,135)}=1.591, p>.05$)					.066	.009	.427

구분	예측변수	B	S.E.	β	t	R^2	ΔR^2	ΔF
	SOP	.252	.258	.090	.977			
	SPP	.304	.261	.107	1.163			
	OOP	.551	.275	.193	2.004*			
	SOP×SPP	.266	.280	.089	.950			
	SPP×OOP	-.001	.243	-.001	-.006			
	SOP×OOP	.184	.290	.059	.636			

주: SOP=자기지향적 완벽주의, SPP=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OOP=타인지향적 완벽주의;

* $p < .05$, ** $p < .01$, *** $p < .001$

표 7. 전문무용수의 연령에 따른 폭식행동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구분	예측변수	B	S.E.	β	t	R^2	ΔR^2	ΔF
20대	1단계 ($F_{(3,283)}=1.784, p>.05$)					.019	.019	1.784
	SOP	.090	.191	.031	.475			
	SPP	.342	.188	.117	1.823			
	OOP	.075	.173	.026	.434			
	2단계 ($F_{(6,280)}=1.789, p>.05$)					.037	.018	1.780
	SOP	.062	.208	.021	.301			
	SPP	.348	.203	.119	1.716			
	OOP	.296	.203	.101	1.459			
	SOP×SPP	.217	.144	.168	1.501			
	SPP×OOP	-.276	.144	-.173	-1.914			
SOP×OOP	-.025	.177	-.017	-.138				
30대	1단계 ($F_{(3,138)}=.273, p>.05$)					.006	.006	.273
	SOP	-.178	.284	-.056	-.626			
	SPP	.170	.284	.052	.598			
	OOP	-.145	.286	-.044	-.509			
	2단계 ($F_{(6,135)}=.464, p>.05$)					.020	.014	.656
	SOP	-.045	.303	-.014	-.149			
	SPP	.057	.307	.018	.187			
	OOP	-.167	.323	-.051	-.518			
	SOP×SPP	.454	.329	.133	1.380			
	SPP×OOP	.110	.286	.037	.387			
SOP×OOP	.087	.340	.025	.257				

Notes: SOP=자기지향적 완벽주의, SPP=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OOP=타인지향적 완벽주의

* $p < .05$, ** $p < .01$, *** $p < .001$

2) 전문무용수의 무용장르에 따른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효과

무용수들의 장르 즉, 전공에 따른 완벽주의 성향이 이들의 섭식태도에 미치는 주(직접)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는 <표 8>, <표 9>, <표 10>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표 8>에 제시된 것처럼, 발레무용수들의 세 가지 완벽주의 성향은 이들의 절식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2단계로 투입된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한국무용수들의 완벽주의 성향 중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beta=.217, t=3.407, p<.001$)와 자기지향적 완벽주의($\beta=.148, t=2.295, p<.05$) 성향은 이들의 절식행동에 직접 영향을 주었고, 이들은 전체 분산의 약 9%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세 가지 완벽주의 성향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전문무용수의 무용장르에 따른 절식행동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구분	예측변수	B	S.E.	β	t	R ²	ΔR^2	ΔF
발레	1단계 ($F_{(3,169)}=3.566, p<.05$)					.060	.060	3.566*
	SOP	.728	.444	.131	1.640			
	SPP	.724	.483	.122	1.499			
	OOP	.582	.435	.101	1.336			
	2단계 ($F_{(6,166)}=2.403, p<.05$)					.080	.020	1.226
	SOP	1.032	.512	.186	2.017*			
	SPP	.811	.520	.137	1.558			
	OOP	.944	.491	.165	1.922			
	SOP×SPP	.463	.366	.223	1.266			
	SPP×OOP	-.279	.304	-.102	-.915			
SOP×OOP	-.018	.429	-.008	-.043				
한국 무용	1단계 ($F_{(3,252)}=8.208, p<.001$)					.089	.089	8.208***
	SOP	.902	.393	.148	2.295*			
	SPP	1.271	.373	.217	3.407***			
	OOP	.079	.363	.013	.219			
	2단계 ($F_{(6,249)}=4.135, p<.001$)					.091	.002	.146
	SOP	.948	.406	.156	2.338*			
	SPP	1.199	.394	.205	3.042**			
	OOP	.121	.433	.021	.279			
	SOP×SPP	.206	.390	.034	.539			
	SPP×OOP	.101	.384	.020	.263			
SOP×OOP	-.150	.483	-.023	-.310				

주: SOP=자기지향적 완벽주의, SPP=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OOP=타인지향적 완벽주의;

* $p < .05$, ** $p < .01$, *** $p < .001$

<표 9>는 무용장르에 따른 섭식통제행동에 대한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발레무용수들의 경우에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이들의 섭식통제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beta = .187, t=2.271, p<.05$), 회귀식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2.415, p<.05$). 2단계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간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지만 F비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국무용수의 경우 타인지향적 완벽주의($\beta=.229, t=3.711, p<.001$)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이들의 섭식통제행동에 직접 영향을 주었으며, 이들 요인은 전체 분산의 약 8%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2단계에서 투입된 세 개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10>은 전문무용수들의 폭식행동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발레 무용수와 한국무용수들의 폭식에 대한 세 가지 완벽주의 성향의 주(직접)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전문무용수의 무용장르에 따른 섭식통제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구분	예측변수	B	S.E.	β	t	R ²	ΔR^2	ΔF
발레	1단계 ($F_{(3,169)}=2.415, p>.05$)					.041	.041	2.415
	SOP	-.024	.215	-.009	-.113			
	SPP	.530	.234	.187	2.271*			
	OOP	.161	.211	.058	.762			
	2단계 ($F_{(6,166)}=2.059, p>.05$)					.069	.028	1.674

구분	예측변수	B	S.E.	β	t	R^2	ΔR^2	ΔF			
한국 무용	SOP	-.033	.247	-.012	-.133	.082	.082	7.508***			
	SPP	.640	.251	.225	2.551*						
	OOP	.269	.237	.098	1.136						
	SOP×SPP	.102	.176	.103	.580						
	SPP×OOP	-.305	.147	-.232	-2.078*						
	SOP×OOP	.160	.205	.141	.779						
	1단계 ($F_{(3,252)}=7.508, p<.001$)										
	SOP	.066	.201	.021	.328	.091	.009	.816			
	SPP	.583	.191	.195	3.052**						
	OOP	.688	.186	.229	3.711***						
	2단계 ($F_{(6,249)}=4.154, p<.001$)										
	SOP	.095	.207	.031	.458						
	SPP	.545	.201	.183	2.714**						
	OOP	.633	.221	.210	2.865**						
SOP×SPP	.075	.199	.024	.375							
SPP×OOP	.275	.195	.106	1.405							
SOP×OOP	-.235	.246	-.070	-.954							

주: SOP=자기지향적 완벽주의, SPP=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OOP=타인지향적 완벽주의;

* $p < .05$, ** $p < .01$, *** $p < .001$

표 10. 전문무용수의 무용장르에 따른 폭식행동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구분	예측변수	B	S.E.	β	t	R^2	ΔR^2	ΔF	
발레	1단계 ($F_{(3,169)}=.366, p>.05$)					.006	.006	.366	
	SOP	-.054	.189	-.023	-.285				
	SPP	.166	.206	.067	.804				
	OOP	.095	.186	.040	.512				
	2단계 ($F_{(6,166)}=1.033, p>.05$)					.036	.030	1.695	
	SOP	-.064	.217	-.028	-.295				
	SPP	.136	.221	.055	.616				
	OOP	.237	.208	.100	1.137				
	SOP×SPP	.219	.155	.254	1.410				
	SPP×OOP	-.220	.129	-.194	-1.708				
	SOP×OOP	-.117	.181	-.119	-.646				
	한국 무용	1단계 ($F_{(3,252)}=1.077, p>.05$)					.013	.013	1.077
		SOP	.089	.238	.025	.373			
		SPP	.350	.226	.103	1.549			
OOP		.033	.220	.009	.148				
2단계 ($F_{(6,249)}=.712, p>.05$)					.017	.004	.355		
SOP		.129	.246	.036				.524	
SPP		.283	.239	.083				1.186	
OOP		.138	.263	.040				.526	
SOP×SPP		.223	.236	.064				.945	
SPP×OOP		-.100	.232	-.034				-.432	
SOP×OOP		.001	.293	.000				.005	

주: SOP=자기지향적 완벽주의, SPP=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OOP=타인지향적 완벽주의;

* $p < .05$, ** $p < .01$, *** $p < .001$

IV. 논 의

본 연구는 전문무용수들의 연령과 무용장르에 따른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이 섭식장애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주(직접)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대의 젊은 무용수들의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은 이들의 절식행동을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하였지만(5.6%), 세 가지 완벽주의 성향과 재검정을 한 상호작용항은 절식행동과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이 섭식통제행동과의 관계를 정적으로 예측하였지만(5.9%),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30대 이상의 무용수들의 경우에 세 가지 완벽주의 성향 중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절식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변수이었지만, 세 가지 완벽주의 성향이 상호작용하여 절식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은 이들 무용수들의 섭식통제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지만(5.7%),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30대의 무용수 집단의 세 가지 완벽주의 성향은 폭식행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무용장르에 따른 완벽주의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발레무용수들의 세 가지 완벽주의 성향은 절식행동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들의 섭식통제행동의 경우,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에 의해 정적으로 예측되었지만 완벽주의 성향들 간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발레무용수들의 폭식행동에 대해서 세 가지 완벽주의 성향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용수들의 경우도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이 이들의 절식행동과 섭식통제행동을 예측하였지만 둘 다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한국무용수의 폭식행동에 대해서 세 가지 완벽주의 성향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무용수들의 연령대별로 섭식장애 행동에 미치는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효과를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가 각각 20대 무용수들의 절식행동과 섭식통제행동을 예측하였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각각 30대 이상의 무용수들의 절식 행동과 섭식통제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발레무용수들의 섭식통제행동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가 한국무용수들의 절식과 섭식통제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전문무용수들의 연령별, 무용장르별 분석결과에 비추어 볼 때, 세 가지 완벽주의 성향이 섭식장애의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효과는 각기 다르다. 세 가지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 중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전문무용수들의 절식과 섭식통제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비록 세 가지 완벽주의 성향이 상호작용하여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번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전문무용수들의 연령과 무용장르에 따라 세 가지 완벽주의 성향이 섭식장애에 각기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만이 20대의 전문무용수들의 절식행동을 예측하는 변수임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30대 이상의 노련한 무용수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젊고 의욕적인 20대의 무용수들이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세우고 자신의 기량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고 비판하는 성향이 절식행동을 유발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성취 지향적이고 자기애적인 현대사회에서 완벽하다는 것은 전문무용수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이상적인 상태이며, 무용수로서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미덕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하지만 완벽주의자는 비현실적인 높은 기준으로 인해 쉽게 좌절하고, 자기비하감에 빠질 수 있으며 현실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갖기 힘들게 하는 등 그 병폐 또한 적지 않다(Burns, 1980).

완벽주의가 거식증이나 폭식증 같은 섭식태도자의 성격특질로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어 왔으며 섭식장애의

발생과 유지에 주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시사되고 있다(Goodwin et al., 2014). 지나친 완벽주의 추구는 오래전부터 우울증, 강박증, 불안장애, 섭식태도 등의 다양한 심리적 장애를 유발, 유지 및 악화시키는데 기여하는 성격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이상 섭식장애 증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매관리와 다이어트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설정해 놓고 이에 못 미칠 경우 심한 수치심과 자기비하감을 경험하게 된다(Cockell, Hewitt, Goldner, & Flett, 2001). 이들은 섭식습관, 몸매, 체중관리에 극단적인 중요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다양한 섭식태도 증상을 초래하게 된다(Nordin-Bates, Schwarz, Quested, Cumming, & Aujla, 2016).

세 가지 완벽주의 하위요인 중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그 동안의 연구에서 개인의 심리적인 부적응과 가장 높은 관련성을 일관되게 발표되었는데(김윤희, 서수균, 2008), 주로 개인의 고독감, 수줍음,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낮은 사회적 자존감, 우울감과 관련이 있었다(Flett & Hewitt, 2014). 본 연구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전문무용수들의 연령과 무용장르에 관계없이 절식행동과 섭식통제행동을 가장 잘 예측하는 주요 변수이었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란 중요한 타인이 자신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자기를 거부할 거라는 신념과 지각을 반영하고 있다. 전문무용수들은 동료 무용수들과 지도자들이 직업무용수로서 자신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무용단에서 어떤 불이익 혹은 부정적인 평가(예; 배역선정에서 불이익, 재계약 등)를 받게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무용수로서 적절한 몸매와 체중관리를 위해 절식을 하거나 섭식을 통제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기존의 연구(김하영, 박기환, 2009)에서도 섭식태도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예측변수로 알려져 있는데,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20-30대 여성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폭식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임을 나타냈다. 또,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이상 섭식태도에 영향을 주는 완벽주의 성향을 규명한 오경자와 정현강(2008)의 연구에 의하면,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거식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날씬해지고자 하는 여성들의 욕구는 여러 가지 행동으로 표현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섭식통제를 들 수 있다(김하영, 박기환, 2009). 이는 무용수들이 자신의 체형과 체중에 대한 강박관념 등으로 인해 절식이나 섭식통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령, 기존의 연구들 중에서 무용수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들(김민희, 1999; 유진, 김광자, 2001; 이연숙, 박현, 2005; Brooks-Gunn & Warren, 1985; Zhuoli & Yuhan, 2015)은 무용전공 학생과 전문무용수들의 완벽주의 성향이 이상 섭식행동을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섭식장애 증상을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제시해오고 있다. 특히, 이들 연구결과는 전문무용수들일수록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을 높게 지각하여 자신의 실제 체중과 상관없이 날씬해지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다이어트 즉, 절식과 섭식통제를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차원적 완벽주의 관점(Hewitt & Flett, 1991)에서 국내 전문무용수들의 완벽주의 성향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직접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실증분석(예비조사 $N=150$, 본 조사 $N=429$)을 사용하였다. 주요 11개 전문무용단에 소속된 남녀 무용수 429명(남자무용수=110명, 여자무용수=31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문무용수들의 완벽주의 성향은 연령에 따라 섭식태도 행동에 상이한 영향을 주었

다. 20대의 전문무용수의 경우,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은 절식행동에 영향을 주었으며, 사회적 부과된 완벽주의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은 섭식통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30대 이상의 전문무용수들에게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절식 행동에 정적으로 예측하는 변수였으며,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섭식통제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변수이었다. 그러나 전문무용수들의 폭식행동은 이들의 연령 및 세 가지 완벽주의 성향과 관련이 없었다.

국내 전문무용수들의 완벽주의 성향은 무용장르에 따라 섭식장애 요인 중 절식과 섭식통제행동에 상이한 영향을 주었다. 즉, 한국무용수들의 절식행동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에 의해, 섭식통제행동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에 의해 정적으로 예측되었지만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완벽주의 성향은 발레무용수들의 절식과 폭식행동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이들의 섭식통제행동을 예측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무용수들의 완벽주의 성향과 섭식장애 또는 무용상해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Hewitt와 Flett(1991)에 의해 개념화된 다차원적 완벽주의에 기초하여 세 가지 완벽주의 성향이 직업무용수들의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문 현대무용단의 단원들을 제외하고 발레무용수와 한국무용수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한계를 안고 있어 본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무용수들 중에는 기혼자들도 있었지만 결혼 여부에 따른 각 측정변수의 평균차이와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주(직접)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검정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무용전공 학생들을 포함하여 전문무용수들의 완벽주의 성향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은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후속연구를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앞으로 전문무용수들의 섭식장애를 잘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한 몇 가지 후속 연구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전문무용수들의 섭식장애와 상해경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할 것으로 가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의 효과를 검정하는데 초점을 두었지만, 앞으로 무용단의 분위기 지각과 개인의 목표성향, 스트레스,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자기관리전략, 지도자와 무용수와의 상호관계 등의 요인도 전문무용수들의 섭식장애와 상해경험 수준에 미치는 직간접인 효과를 가질 것으로 사료됨으로 앞으로 검정하는 것도 필요 할 것이다. 둘째, 전문무용수들의 섭식장애는 무용활동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일이다. 일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전문무용수들도 하나의 직업으로서 무엇보다 자기관리전략이 중요하다. 자기관리전략이란 개인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측면뿐 아니라 연습과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자기 스스로의 절제를 통해 철저히하는 것을 말한다(허정훈, 2004). 이러한 자기관리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심리 행동적 특성인 바 전문무용수들의 장르별 신체관리는 물론 심적, 정신적 관리 및 연습과 생활의 영향관계를 검정해 봐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민화(2015). 무용전공 여대생들의 스포츠영양지식과 신경성 대식증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김민희(1999). 발레 무용수의 섭식태도의 원인과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8(1), 713-721.
 김소정, 손준호, 류호상(2008). 무용전공 여대생의 BMI 및 신체자아상에 따른 섭식태도 수준. 한국발육발달학회지, 16(3), 163-172.
 김시연, 백근영, 서영석(2010).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가 섭식태도 증상에 미치는

- 영향: 무용 전공 여대생과 일반 여대생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613-634.
- 김윤희, 서수균(2008). 완벽주의에 대한 고찰: 평가와 치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581-613.
- 김하영, 박기환(2009). 완벽주의, 충동성, 섭식절제와 폭식행동의 연관성.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1), 73-88.
- 김혜정, 이옥란(2011). 무용전공 고등학생의 신체이미지와 외모관리행동 및 섭식장애의 관계. *한국무용과학회지*, **23**, 1-18.
- 김희영, 김숙영(2003). 무용전공 여대생의 체중조절과 섭식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0**(2), 1091-1103.
- 박선정, 민현주(2012). 무용전공 여학생들의 체형만족도에 따른 섭식척도와 섭식장애와의 관계.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0**(4), 27-45.
- 박수정, 김현숙(2015). 무용전공 여자대학생의 완벽주의성향과 소진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무용과학회지*, **32**(1), 75-90.
- 박재우(1998). 과제의 자아위협도와 완벽주의가 과제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신말연(2016). 여성 무용전공자들의 영양지식 인지, 식습관, 신체조성 및 건강관련 체력과의 상관관계. *한국무용과학회지*, **33**(1), 107-117.
- 양명주(2012). 발레리나들의 섭식장애와 골밀도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과학회지*, **27**, 181- 191.
- 오경자, 정현강(2008). 이상 섭식태도에 영향을 주는 완벽주의 성향과 정서조절 양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9**(1), 41-55.
- 유 진, 김광자(2001). 전공과 비만수준에 따른 여자 무용수들의 섭식태도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5**, 609-619.
- 유 진, 이선애(2005). 무용전공 여학생들의 섭식태도 위험요인 예측인자 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6**(1), 17-29.
- 유영란, 최현혁(2014). 완벽주의, 지각된 유능감과 탈진의 관계에서 자율적-통제적 행동조절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체육학회지*, **53**, 421-434.
- 이미화, 류진혜(2002). 완벽주의 성향의 순기능과 역기능. *청소년학연구*, **9**(3), 293-316.
- 이연숙, 박 현(2005). 무용 전공 여고생과 비전공 여고생 간의 섭식태도, 월경장애 및 영양상태 비교. *체육과학연구*, **16**(1), 56-64.
- 이지혜, 양재근, 채진석(2015). 무용수의 다이어트경험 유/무에 따라 식이섭취를 매개로한 완벽주의가 섭식장애에 미치는 조절효과 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24**, 1365-1376.
- 정유진(2013). 무용전공 대학생의 완벽주의성향과 신체불만족 및 공연스트레스의 관계. *한국무용과학회지*, **30**(1), 37-53.
- 표경선, 안도희(2006).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완벽주의, 성취목적, 부모 양육방식 및 학업성취간의 관계모형. *아동교육*, **15**(2), 211-227.
- 허정훈(2004). 성취목적 지향성과 자기관리의 관계 분석. *체육과학연구*, **15**(3), 127-135.
- Abraham, S. (1996). Characteristics of eating disorders among young ballet dancers. *Psychopathology*, **29**(4), 223-229.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Appleton, P. R., Hall, H. K., & Hill, A. P. (2009). Relations between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nd burnout in junior-elite athlete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10**, 457-456.
- Bieling, P. J., Israeli, A., & Antony, M. M. (2004). Is perfectionism good, bad, or both? Examining models of the perfectionism construc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6), 1373-1385.
- Brooks-Gunn, J., & Warren, M. P. (1985). The effects of delayed menarche in different contexts: Dance and nondance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4), 285-300.
- Brown, E. J., Heimberg, R. G., Frost, R. O., Makis, G. S., Juster, H. R., & Leung, A. W. (1999).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to affect, expectations, attributions and performance in the classroom.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8**(1), 98-120.
- Burns, D. D. (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New York: Novem.
- Cockell, S. J., Hewitt, P. L., Goldner, E. M., & Flett, G. L.(2001). Trait and self-presentation dimensions of perfectionism in women with anorexia nervosa.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4**, 713-730.

- Dunn, J. G. H., Dunn, J., & Syrotuik, D. G. (2002). Relationship between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nd goal orientations in sport.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24*, 376-395.
- Elliot, A. J., & Church, A. (2005). Competence and motivation: Competence as the core of achievement motivation. In A. J. Elliot & C. S. Dweck (Eds.), *Handbook of competence and motivation* (pp. 3-12). London: Guilford Press.
- Enns, M. W., Cox, B. J., & Clara, I. P. (2002). Adaptive and maladaptive perfectionism: Developmental origins and association with depression prone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921-935.
- Flett, G. L., & Hewitt, P. L. (2014). The perils of perfectionism in sports" revisited: Toward a broader understanding of the pressure to be perfect and its impact on athletes and dancers.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45*(4), 395-407.
- Frost, R. O., Heimberg, R. G., Holt, C. S., & Mattia, J. I. (1993). A comparison of two measures of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1), 119-126.
- Frost, R. O., Marten, P.,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5), 449-468.
- Gamer, D. M., & Garfinkel, P. E. (1991). The eating attitude test: An index of the symptoms of anorexia nervosa. *Psychological Medicine, 9*, 272-279.
- Gilman, R., Ashby, J. S., Sverko, D., Florell, D., & Varjas, K.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multidimensional life satisfaction among Croatian and American youth.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 155-166.
- Goodwin, H., Arcelus, J., Geach, N., & Meyer, C. (2014). Perfectionism and Eating Psychopathology Among Dancers: The Role of High Standards and Self-criticism.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22*(5), 346-351.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456-470.
- Hewitt, P. L., & Flett, G. L. (1993). Dimensions of perfectionism, daily stress, and depression: A test of the specific vulnerability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58-65.
- Kawamura, K. Y., Frost, R. O., & Harmatz, M. G. (2002).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parenting styles to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2), 317-327.
- Lynd-Stevenson, R. M., & Hearne, C. M. (1999). Perfectionism and depressive affec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6*, 549-562.
- Nordin-Bates, S. M., Schwarz, J. F. A., Quedsted, E., Cumming, J., & Aujla, I. J. (2016). Within- and between-person predictors of disordered eating attitudes among male and female dancers: Findings from the UK Centers for Advanced Training. *Psychology of Sport & Exercise, 27*, 101-111.
- Ommundsen, Y., Robert, G. C., Lemyre, P. N., & Miller, B. W. (2005). Peer relationships in adolescent competitive soccer: Associations to perceived motivation climate, achievement goals and perfectionism. *Journal of Sports Sciences, 23*(9), 977-989.
- Penniment, K. J., & Egan, S. J. (2012). Perfectionism and learning experiences in dance class as risk factors for eating disorders in dancers.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20*(1), 13-22.
- Pollard-Smith, T., & Thomson, O. P. (2017). Professional ballet dancers' experience of injury and osteopathic treatment in the UK: A qualitative study. *Journal of Bodywork & Movement Therapies, 21*(1), 148-156.
- Quedsted, E., Cumming, J. & Duda, J. L. (2014). Profiles of perfectionism, motivation, and self-evaluations among dancers: An extended analysis of Cumming and Duda (2012).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45*(4), 349-368.
- Ringham, R., Klump, K., Kaye, W., Stone, D., Libman, S., & Marcus, S. (2006).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among ballet dancer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39*(6), 503-508.
- Saboonchi, F., & Lundh, L. G. (2003). Perfectionism, anger, somatic health, and positive affec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 1585-1599.

Shumaker, E. A., & Rodebaugh, T. L. (2009). Perfectionism and social anxiety: Rethinking the role of high standards. *Journal of Behavioural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40, 423-433.

Slade, P. D., & Owens, B. G. (1998). A dual process model of perfectionism based on reinforcement theory. *Behavior Modification*, 22, 372-390.

Zhuoli, T., & Yuhua, S. (2015). Eating attitudes, weight control behaviors and risk factors for eating disorders among Chinese female dance students. *The European Journal of Psychiatry*, 29(4), 249-258.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Dancers'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nd Eating Disorders

Kim, Tae-Kyoung *Sangmyoung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both the main effects and interaction effects of professional dancers' perfectionism on eating disorders and injury experiences from a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perspective (Hewitt & Flett, 1991). For this, 429 professional dancers (110 male dancers, 319 female dancers) completed a set of questionnaires including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eating disorder behaviors, and injury experience inventory in dance setting.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dancers with high self-oriented perfectionism aged 20 were high in injury experiences having no relation to the level of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but dancers with high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was high in injury experiences when they perceived other-oriented perfectionism high. Second, professional dancers' perfectionism had different influences on diet and restrained eating behavior among eating disorder behaviors with their dance genre. Korean traditional dancers' diet were positively predicted by both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and self-oriented perfectionism, and their restrained eating behavior predicted by both other-oriented perfectionism and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them.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had no direct impact on ballet dancers' binge eating behavior, but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was a predictor of their restrained eating behavior. These results suggest that professional dancers are inclined to get a lot of social and cultural pressure in performing a perfect skill and being thin as a dancer having no relation to their weight. Professional dancers require knowing self-management strategies for effective diet and healthy eating.

Key words : professional dancers,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eating disorder, eating behavior, health

논문투고일: 2017. 11. 28
논문심사일: 2017. 12. 19
심사완료일: 2018. 01. 16